



정책적인 배려아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황 석 규
(삼진농장대표, 본회이사)

난가 안정이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는 그런 불공평한 발상이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정당한 자기제어속에서 자기 영역에 속하는 정당한 이윤 추구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자유경제의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어야만 한다. 그러니 만큼 어느 특정계층의 일방적인 과욕,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양계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현실정하에서는 자기영역의 권리 이전에 모두를 위한 자기제어가 더욱 소중함을 인식하고 난가안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의식을 가져야만 하겠다. 즉 난가안정을 위해서는 부화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중간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재삼 인식하고 유형 무형의 변수로 난가 등락이 수시로 반전하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양계 관련분야의 모든 당사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켜야만 할것이다.

그렇다면 유기적인 결합관계에서 첫단계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부화장에서 양계장에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한 입란(入卵) 결정 요인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입란결정을 위한 동기유발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계절수요에 따라 입란을 결정하는 경우와 양계 산물의 가격추이에 따라 입란이 결정되는 경우, 이 두가지 요인이 전체의 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일종의 생산조절 기능은 각 부화장끼리 수평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전체적인 수급자료를 분석, 이에 따라 생산 수수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화장마다 단편적, 분산적으로 생산수수의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조절상의 역기능을 초래, 난

가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화업계에서는 간과치 말고 수급조절의 차원에서 사망감을 느끼고 실천적인 자율 기구의 성립을 모색하는 동인(動因)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채란업계의 경우 부화장에서 나온 병아리가 유전적으로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유전 형질을 발현시킬수 있게 뒷받침 해 줄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의 노력을 소홀히 하여 닭의 생리기전을 무시하는 사양관리 형태로 일관한다면, 결국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영압박을 초래하게 되고 난가등락이 심한 시기에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며, 이로인해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방매하여 대다수 건전한 채란업자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사양관리개선 노력을 기울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이윤을 극대화시켜 난가가 불안정

할 때일수록 적정 난가를 고수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르고, 이러한 연구노력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대해 더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그렇다면 사양관리개선 노력만으로 난가안정을 위한 능력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축산물의 유통구조는 전체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나 특히 양계산물의 경우 두드러져 조금만 생산과잉이 되어도 난가가 급락하고 공급이 부족되면 금방 난가가 회복되는 단주기 현상이 반복되어 적정 규모의 부화 및 육추수수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수집상 몇 사람에게 의해서 적정가격이 아닌-생산자, 소비자 누구도 원

치 않는 가격- 조작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직시해 볼때에 정당한 적정난가 결정의 주도권을 생산자가 조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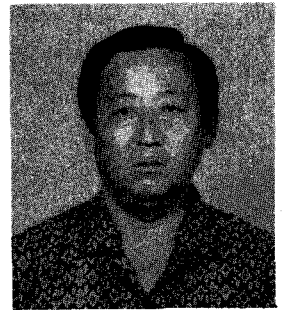
한편 현재의 계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식란이외의 가공식품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난가공 산업이 가지는 계란의 수급 조절기능(식란의 대규모 저장시설, 제품의 장기보관 특성)과 소비패턴의 다양화 유도로 계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으므로 대규모의 식란저장 시설을 갖춘 난가공업체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액란 및 건조분란 등의 신제품개발로 소비자층을 두텁게하고 부수적으로 계란에 대한 이미지개선 및 효과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수행게하여 난가불안정요인을 상당부분 자체 흡수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난가의 적정가격 하한선을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즉, 최저 평균생산비 수준에서 조정하고, 그 상한을 관련물가를 참작하여 소비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여 난가변동의 폭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기별 평균 생산비를 산출, 난가상승시 일정 비율의 난가안정기금을 적립하여 난가 하락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관계당국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같은 배경아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련단체가 힘을 합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난가안정에 한걸음 다 가설 수 있을 것이다.

계란 도매시장 설립 난가 안정기금조성 필요

구 본 영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 이사)



자 유경제체하에서의 물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하여 결정되며, 계란의 가격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